

##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영성 추구”

천주교회 미사에서 많은 의식이 행해지는 것과 달리 개신교의 예배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된다. 특히 개신교의 전통은, 인간이 만든 의식보다 ‘보이지 않는 빵’(Invisible Bread),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을 둔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의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주장한다. 오늘의 이민교회의 예배는 점점 단순화되는 추세이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존했던 초대교회의 영성을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교회에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전부라는 씨드교회. 씨가 심기면 자라나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전세계 디아스포라들에게 둔 비전이 심겨져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고대한다. 권혁빈 목사를 만나봤다.

이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를 성도들에게 스며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란, 단지 지역사회를 섬기고 아웃리치를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교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 곧 있으면 교회 창립 5주년을 맞는데 중간에 팬데믹 2년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선교적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일상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모이는 것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것이다. 팬데믹 자체가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방향이 미셔널 처치(선교적 교회)를 향해 가고 있다고 들었다.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인데 디아스포라 시대에 선교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교회가 없는 것 같다. 교회는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미셔널이라는 것이다. 사실 교회가

**-교회 이름이 ‘씨드교회’이다.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원래 처음에는 ‘흩어진 씨앗’으로 지어려고 했다. ‘씨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디아스포라이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존재가 선교적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흩어진 씨앗이라 할 수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 3면으로 계속



## “탈북 후 25년 살던 여성까지 북송... 인간이 할 짓인가”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용 기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이 10월 30일 낮 12시 30분부터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북민과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발언 이후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성명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기자회견 장소인 대사관 앞에서 명동성당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들뿐 아니라 외국인들 여럿이 참석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으며, 지나

가던 해외 관광객들도 기자회견 내용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마다 기자회견 및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5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해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10월 9일 밤, 중국 정부는 그간 중국 감옥에 억류된 탈북민 600여 명을 비밀리에 전격 강제북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 3면으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로피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내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예수 은혜 붙들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미라클 블레스'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30일에 첫째주 감사 김동기 목사가 부흥회를 이끌었다. ©주님의영광교회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10월 29일(주일)부터 11월 18일(토)까지 '미라클 블레스'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30일에 첫째 주 감사 김동기 목사(광음교회)가 부흥회를 이끌었다.

김동기 목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을 강조하며, “이 땅에서도 잘되고 공부도, 사업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될 줄 믿는다”라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살았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사

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선택했을 때 했던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될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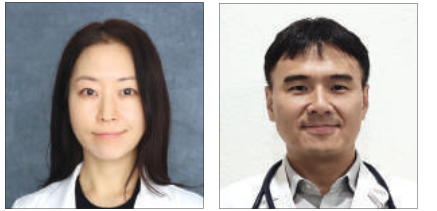
그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며 하면서 친구의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예수를 영접

하게 된 이야기, 개척의 시절과 목회 경험 및 교회 성장 이야기를 나눴다.

김동기 목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살면 여호와와의 이레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은혜로 바뀌어지고 축복의 세계로 전환될 줄 믿는다”라면서 “교회를 잘되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한다”고 첫날 집회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 11월 릴레이 의료세미나



새라 김 박사 조재형 박사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조재형 박사와 새라 김 박사를 초청, 아래와 같이 11월 의료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재형 박사는 11월 6일(월) 12시 10분에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100 세 심장 건강비결'에 대해 강연한다. 그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교수를 역임했고, 시더스 사이나이(Cedars-Sinai)에서 메디컬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이다.

11월 13일(월) 12시 10분에 같은 장소에서 '노년 인구의 치매와 우울증'에 대해 강의하는 새라 김 박사는 듀크 의과대학 졸업 후 듀크 대학 병원에서 레지던트와 펠로우십을 거쳐, 현재 시더스 사이나이 노년학 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

주소: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387-7733



29일(주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제4회 남가주 한인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었다. ©기독교일보

## 제4회 남가주 한인 합창단 정기 연주회 “어느 가을날의 만남”

가을이 깊어 가는 10월 29일 주일 저녁 7시 LA에 위치한 미주 평안 교회(임승진 목사)에서 남가주 한인 합창단(단장: 김정자, 지휘: 최원현, 반주: 김송하)이 네 번째 정기 공연을 했다.

진달래꽃, 못잊어 등 우리에게 익숙한 가곡들과, When I fall in Love, Dancing Queen, Can't help falling in Love같은 외국곡들, 그리고 세상을 사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등의 성가곡들 등등 다양한 곡들이 연주되었다. 특히 '10월의 멋진 날에' 중간에는 관객들에게 장미꽃을 선사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며 귀한 만남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힘한 세상 다리가 되어'와 주제곡인 '어느 가을날의 만남'의 곡을 앵콜곡으로 부르며 2시간이 넘는 긴 공연을 마무리 했고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

화 운동 대표)가 마침 기도를 했다.

2014년 6월에 창단되어 3년에 걸쳐 정기 연주회를 가졌던 남가주 한인 합창단은 지난 3년 간 팬데믹으로 인해 인원이 대폭 줄었으나, 팬데믹 이후 재기하여 5명의 솔리스트와 40여명의 단원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번 콘서트를 준비해 15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이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가주 한인 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미주 평안 교회에 모여 연습하며,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한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열렸다. 이 공연은 미주평안교회, 미주성시화본부, 새로운교회, Bank of HOPE, Hyzen 수수수 등에서 후원했고, 수익금의 일부는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 후원을 위해 사용된다. 김동욱 기자

## 은혜샘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예배 “인생의 가이드가 있습니까?”



은혜샘교회 창립 5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은혜샘교회 제공

은혜샘교회(표희곤 목사)는 지난 10월 22일(주일) 오후 12시에 창립 5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집사 안수식과 권사 취임식이 진행되어 은혜샘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다.

교회 개척 후 약 1년 6개월 만에 팬데믹이 시작되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첫 번째 임직식을 가져 그 의미가 더했다. 예배에는 성도들과 축하객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초대되어 예배를 드렸다.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남서부지방회장 신용석 목사(로고스라이프 교회)가 기도하고, 표희곤 목사가 '인생의 가이드가 있습니까?(눅5장1-11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으며 임직자들과 성도들에게는 '가이드 되시는 주님을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송기 목사(임마누엘 헬로십 교회)의 축사와 윤석형 목사(산샘교회, 미주성결교회 증경 총회장)의 권면이 이어졌으며, 은혜샘 교회 중창단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특별 찬양을 했고, 윤석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를 마친 후 박모세 목사(살롬 장애인 선교회)가 식사 기도를 했다.

이날 임직자로 세워진 이들은 다음과 같다. 집사 안수 김학근, 권사 황명희/정은경/김은미, 김민선 기자

## 창대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항상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비의 통로로 종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 풍조에 좌우되지 않고 창립25주년을 맞게 하시고, 20년 넘도록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노숙자에게 사랑의 손길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예배 드려 온 '사랑나눔 선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25년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과정속에서도 '창대장로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셔서 임직자에게 마음껏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이춘준 목사

- 일 시 : 2023년 11월 12일 오후 3시
- 임직자 : 황상영 권사, 이상용 안수 집사
- 장 소 : 창대장로교회  
3630 North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 전 화 : 951-966-9191

### 예배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사랑의 나눔터(매주 투)	오전 10:00~11:00



## 창대장로교회

### 교회의 큰 기둥은 예배와 소그룹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예배 순서 간소화, 직분제 폐지 단순한·유기적·참여적 교회

→ 1면 기사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에 이어서  
목회의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 둘째는 사랑의 공동체, 셋째는 다이스포라 선교이다. 사실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다이스포라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먼저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하고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단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세상에서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다.

저희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회철학은 첫째로 심플해야 하고 둘째로 유기적, 셋째로 미셔널이다.

#### 단순한 교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어떻게 생각했나면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가 본질을 향해서 더 다이내믹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단순하다. 예배와 소그룹이 전부이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 소그룹에 교인 95% 이상이 참여한다. 예배도 되게 단순하다. 저희 교회는 없는 게 많다. 예배에 대표기도가 없고 성가대도 없고 헌금시간도 따로 없다. 심지어 주기도문, 시편 낭독도 없을 정도이다. 예배 본질은 순서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단순화시킨 만큼 찬양, 기도,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훨씬 높아졌다.

또 교회에 임직제도가 없다. 장로, 집사, 권사가 없다.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축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야 한다. 교회에 임직 제도가 가지는 장점들이 많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신앙의 에너지가 교회 안으로만 집중시킬 수 있음도 사실이다.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선교사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직은 중요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

질은 아니다.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우리 교회 소그룹에는 종류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성된 그룹이 17개가 있다. 독서 클럽, 골프 클럽,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돕는 소그룹, 환경을 위한 리사이클 소그룹, 자전거 소그룹도 있다.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그룹이 사회적 접촉점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서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이 된다. 그 밖에 초신자들이 기본적인 신앙을 배우는 소그룹, 부부나 자녀들을 위한 소그룹,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소그룹 등 소그룹이 80여 개가 있다.

- 소그룹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더십 트레이닝이 중요할 것 같다. 성도들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리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강의 및 훈련을 하고 있다. 리더들끼리 갖는 모임이 있고, 커리큘럼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도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 유기적인(organic) 교회

교회가 비제도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기적인 교회다. 아까 임직이 없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계층이 없으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장벽이 없다고 느낀다.

교회에 의사 결정하는 팀이 필요하다. 우리는 3년씩 돌아가면서 한다. 목회 지원팀과 이사회가 있다. 저희는 이사회를 이사진센터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 법적인 문제를 돌본다. 3년마다 인원을 교체하기에 폭넓은 교인과의 소통이 이뤄진다. 특정한 소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자발적이라는 의미는,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억지로 해야 한다거나 예배와 소그룹 외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없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 한다. 교인들에게 자신의 영성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게 하려고 노력한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다. 교회의 역할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참여적인데,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은 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배시간에 대표기도가 없어서 설교가 끝나면 모두가 같이 기도한다. 기도는 예배 있어서 본질이지만 대표기도라는 형식 자체는 본질이 아니다. 모두가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성가대를 따로 두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찬양하니 모두가 다 성가대가 되는 것이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하는 멘트가 있다.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한다. 또 다른 차원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을 할 때 두 가지를 나눈다. '지난주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리고 '이번주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눈다. 말씀을 내 삶에 문지르게 함으로 선교적 삶이 되게 하는 것이다.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보다 성도들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본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선교적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양육의 핵심은 리더들이 선교적인 삶,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보지 않고는 따라오지 않듯이 말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실천들을 매우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교회에 모이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흠여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새벽예배를 토요일에만 한다. 대신 매일 보내는 '기도의 씨앗'이라는 콘텐츠가 있다. 일상에서의 신앙을 더 연습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었다. 로마지하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발각되지 않아야 했다. 또한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3년 이상 그들의 삶이 검증된 이후에 크리스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

우리는 교인이 등록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는 좋은 시민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저는 그게 매우 영적이고 선교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번은, 아웃도어 기업인 '파타고니아'가 환경을 위해서 수익 1%를 사회를 위해 쓰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사장이 크리스천일 거라 짐작했는데 알아 봤더니 불교도였다. 크리스천이 경영하는 곳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씨드교회 또한 헌금의 1%를 환경 문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먼저 크리스천들이 도덕과 법을 지켜야 한다.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단지 듣는 게 아니라 씹어 먹어야 하고 그 영양분이 몸 안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 개척교회에서의 불편함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목회 철학을 나누면, '이게 제가 꿈꿔왔던 교회이다'라고 한다. 많은 이민교회들도 시도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씨드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다. 씨드교회는 성도님들이 훌륭한 교회이다.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다.

####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가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핵심적인 선교 자원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120개국, 중국인들은 150여 개국, 그런데 한국인들은 181개국에 흠여져 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부흥과 이민의 역사가 맞물려 있다. 디아스포라들은 선교에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의 매개체가 된다. 디아스포라 선교가 하나님께서 흠여진 한인들에게 두신 뜻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족 170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 80만 명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왜 중국의 조선족들을 한국에 보내셨을까. 중국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한국에 탈북민 교회만 60여 개가 있다. 조선족은 중국선교를 위해, 탈북민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곳을 떠나 한국에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들을 위해 디아스포라가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깨우는 선교사역을 올해부터 시작 했다. 각 나라의 한인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정체성과 비전을 나눌 계획이다. 디아스포라 선교가 이 시대의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선교의 진정성이 떨어진다.

토마스맹기자

→ 1면 기사 '탈북 후 25년 살던 여성...' 에 이어서 이들은 "탈북 후 지원성 장애인현에서 25년간 살던 여성을 올해 4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변방대 구류시설에 감금, 이번에 강제복송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그 여성은 중국에서 낳은 24살 된 딸에게 9일 오후 7시 30분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한 후 복송당했다. 중국에서 한족 남편과 결혼해 25년간 살면서 자녀까지 둔 여성을 체포해 강제복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이 할 짓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이처럼 인권유린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소 170여 명을 추가 복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모두 경악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몽(夢)을 말하며 세계 리더 국가임을 자처하던 중국의 민낯인가? 아직 미개와 야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이 어찌 세계 리더국가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런 중국에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가 합당한가? 그 자리는 세계인들을 이끌 지도력과 덕망이 있는 국가에 합당하지, 탈북민을 사지로 보내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중국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자리"라며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인권 유린 국가이므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강조하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중국 정부는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 이렇게 유엔에서 제정한 모든 규약과 국제법을 철저히 위반한 중국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퇴출시켜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할 시기에 왔다"며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는 강제복송을 중단하고 세계인들 앞에 그간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이들은 "이제 중국이 진정으로 도덕성을 회복하여 모범 인권 국가로 거듭나고, 세계인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어 대국

답게 국제적 책임을 다해서 세계인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국가가 되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끝으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남한으로 입국할 경우 이민 수속을 밟지 않고 바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기를 바란다. 이번 11월 15-17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를 천명하고,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웅 기자

# Churches for All Generations

가정, 직장,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성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들

“여호와께 돌아가자” “Let Us Return to the Lord”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has torn us to pieces but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but he will bind up our wounds (Hosea 6:1)

### 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경렬 목사

**예배시간**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예배 1부 오전 10:30  
주일예배 1부 오후 1:30  
[www.smkc.us](http://www.smkc.us)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 사이프레스 VINE CHURCH



조진용 목사

**예배시간**  
주일예배 KM 오전 11:30  
주일예배 EM 오후 1:30  
[www.vinesocal.com](http://www.vinesocal.com)  
21732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T)714.686.1441

### Generations to Generations

#### Mentoring Pastors



KM 조형수 목사



EM 채영일 목사

# 강일한 부의장, “러빙워십과 제이어스 집회는 거룩한 낭비”



이용주 본부장, 조셉 리 목사, 강일한 상임고문. 강일한 고문은 러빙워십과 제이어스의 연합 공연을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 같은 거룩한 낭비라고 설명했다. ©기독교일보

지난 7월 제이어스와 러빙워십의 인터뷰, 9월 러빙워십 인터뷰에 이어, 러빙워십과 세 번째 만남을 가지며 조셉 리 목사가 강조하는, '비움'에 대해 들으며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러빙워십이 드러나는 것도, 러빙워십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해지길 원한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이 기도제목들을 들으며, '누구에게나 타인에게 인정 받길 원하는 인정욕구가 있지 않나?' 그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비우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그 비움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지난 목요일(26일) 기독교일보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는 조셉 리 목사와 러빙워십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일한 고문(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민주평통 부의장), 이용주 본부장이 함께 했다. 강일한 고문은 이 사역을 현실로 만들어 낸 것은 기도라고 말했다.

"6일 안에 티켓의 50%가 팔렸다. 일주일 만에 거의 반 이상이 나갔다. 제이어스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살하려던 아이가 그들의 집회에 와서 찬양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 집회에 이런 간증들이 있다. 올 초부터 조셉리 목사님이 미디어 사역에 대해 계속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카메라 맨도, 프로페셔널도 없이 비전문가들이 기도하고 한 것인데 이런 반응이 있으니 깜짝 놀랐다. 이렇게 관심이 뜨거울지 예상 못했다. 목사님이 너무 사건을 크게 벌였는데 하나 하나 하나님이 조율해 가신다. 제이어스 팀과 러빙워십이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니 잘 연합되는 것 같다."

조셉 리 목사는 이 집회를 통해 러빙워십이 화제의 중심이 되기 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찬양의 감동과 감격이 그 집회에 모인 이들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길 기도하고 있다.

"러빙워십과 제이어스의 연합집회를 12월 17일과 LA, 12월 22일과 23일 OC에서 하게

된다.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대학생선교회(CCC)가 주최한 '엑스플로 74' 집회 때 믿음의 어른들이 모여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같은 부족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K-크리스천 컬처를 통해서 은혜를 부여하신다면, 이 분들이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연결되고 그 감격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이 집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집회들을 보면, '내 교회에 오십시오'를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 미국에 처음 건너왔던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고,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의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집회의 목적이 무엇이나, 러빙워십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데, 러빙워십을 시작할 때 품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다. 저희가 나누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대학생들이 10만 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듯이, 그리고 그 청년들이 선교를 나가고 목회자로 헌신했듯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청년들을 일으키시길 기대한다."

조셉 리 목사는, 이번 집회에 대해,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 것이 지구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것이듯, 저는 저희에게 맡겨주신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작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자리를 최고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 드린 마리아의 모습과 닮았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지닌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고자 한다.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조셉 리 목사는 큰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면

## 제이어스와 연합 집회 YESHUA 12/17(주일) 7시 LA 노보 극장 12/22,23(금,토) 7시 애너하임 내셔널 그로브 극장에서

서도 러빙워십의 시선과 관심은 그 반대편, 여전히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있다며, 그것이 러빙워십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소외된 사역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려 한다. 저희 시야가 넓어져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릴 수 있길 바란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청년뿐만 아니라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 봤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싶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좌절감을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절망과 고통은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다."

### 러빙워십이 추구하는 것은 아들람 공동체

러빙워십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러빙워십의 사역이 오픈되고 커지고 있지만 제 발걸음은 항상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향한다. 러빙워십은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항상 아들람 굴에 머무르고 있다. 어렵고 힘든 분들, 저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데 결국 그분들도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스텝을 늘리지 않는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이다. 규모가 있는 집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뜨면 안 된다. 우리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한다. 복음이 남가주 전체로 흘러, 어렵고 고난받는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저희의 눈과 발걸음은 그분들에게 있다. 이번 집회가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특별한 이벤트식 집회라 한다면, 매일 매일의 삶에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희들의 존재 가치이다. 저희 존재 의미를 의식하고 저희들의 위치가 어디 인지 생각하는 선교단체로 남고 싶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

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열심히 따라갈 뿐이다. 아무리 저희들이 광고를 해도,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티켓이 팔리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을 모으려 해도,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모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사역은 기도이다. 그것이 러빙워십의 삶이다."

어떻게 늘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하루를 다 마치고 칼럼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영적으로 조율한다. 평안은 좋지만 편안하면 죽는다. 항상 영적으로는 벼랑 끝에서 있으려 한다. 그래야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 그 절박함 없이는 불가능하다. 편안한 영성이 될까 봐 경계한다."

강일한 고문은 이 모든 과정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도의 용사들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갖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목표를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번 집회는 남가주에서도, 미국 한인 교계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집회이다. 러빙워십이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기도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이용주 선교사는, 이번 사역이 잘 될지 염려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한 걸음씩 걸어 왔다"며, "매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하게 하시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빙워십과 제이어스(J-US)의 연합 콘서트 예수아(YESHUA)는 12/17(주일) 오후 7시 LA 다운타운에 있는 노보 극장(Novo Theater by Microsoft)과 12/22,23(금,토) 오후 7시 애너하임 내셔널 그로브 극장(Anaheim Grove National Theater)에서 열린다. LA 공연 티켓은 [axs.com](http://axs.com), 애너하임 공연 티켓은 [ticketmaster.com](http://ticketmaster.com)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이들은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리토스 크로스로드 멀티내셔널 처치 오브 나자렌(Cerritos Crossroads Multinational Church of the Nazarene, 주소: 12229 Del Amo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찬양예배를 드린다. 주디 한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mailto: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APPY Thanksgiving

존경하는 분들에게 **건강신발 슈올즈**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한국산 명품 기능성 신발  
 진동칩이 들어있는 신발  
 허리, 다리, 무릎을 보호해주는 신발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신발  
 체내 혈류를 증진시키는 신발  
 신체 리듬을 활성화시키는 신발  
 장시간 활동에 피로를 덜어주는 신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신발

목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신발!

신발, 과학을 담다!

**슈올즈** 미주1호점 (213)908-6497  
 3500 W. 6<sup>th</sup> St, Suite 233, Los Angeles, CA 90020 (LA 시티센터 2층)

**영업 시간**  
 월-토, 오전10시~오후 6시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건강 고민 많으신 시니어분들을 위해 센터메디컬클리닉에서 준비했습니다.

# 시니어 건강플랜 상담 개최!

상담에 참여하시고, 맛있는 식사와 선물 받아보세요!

**날짜** 11월 15일 (수) 11월 29일 (수) **중 택 1**

**시간** 11:00 AM **장소** 초만원 식당 901 Starbuck St #M, Fullerton, CA 92833

**예약/문의** (714) 519-3024 전화 (문의 가능 시간: 평일 8:30 AM ~ 5:30 PM)

\* 각 날짜 당 참석 인원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2일 중 하루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진료과목

###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 노인성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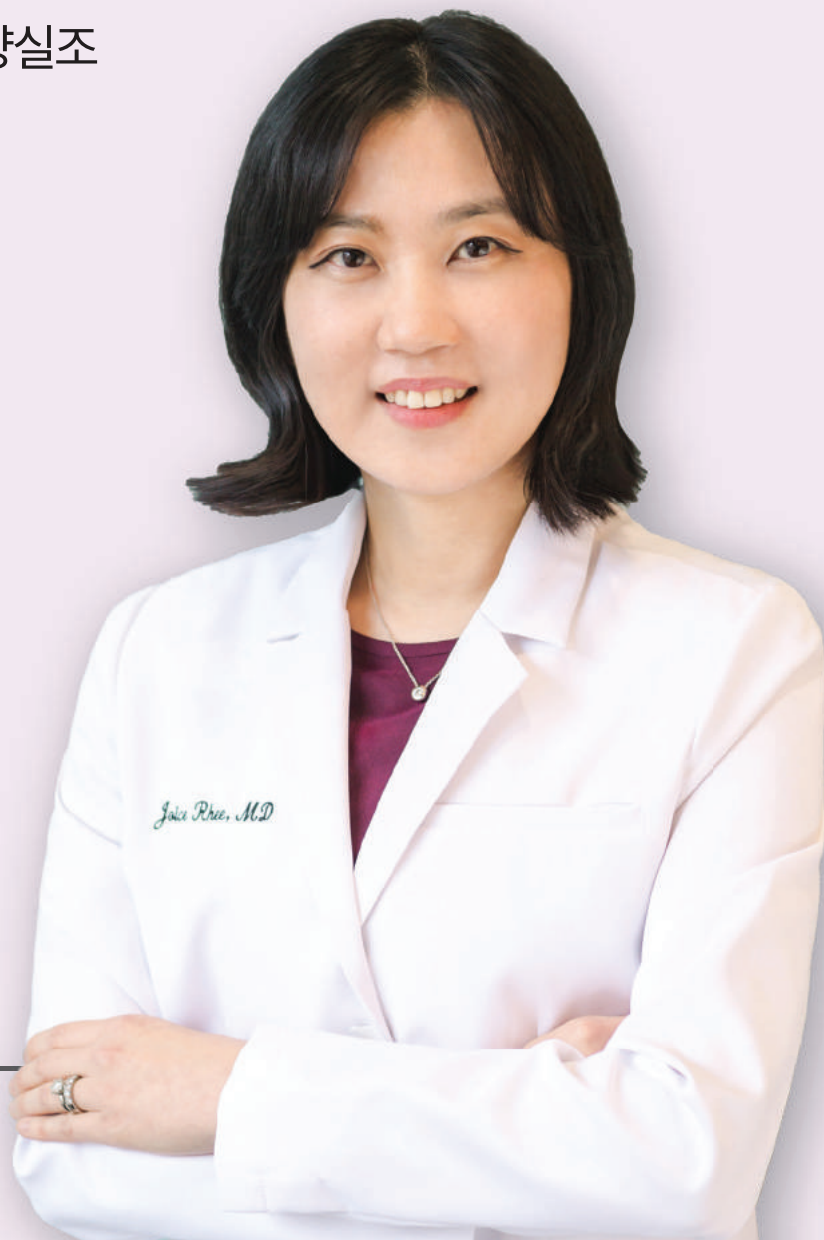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 예방 접종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진료시간: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교회 단신

▶은혜한인교회는 11/3~4(금~토)에 비전센터 205A호에서 이진아 대표(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를 초청해 성경적 자녀 양육 및 성교육 세미나를 연다. 3일 오후 5:15, 4일 오전 9:30, 12시, 2시이며, 총 4개의 강의가 있다. 1강: 다음 세대의 위기, 미디어와의 전쟁, 2강: 자녀를 위한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과 바운더리 세우기, 3강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 주어야 할 현명한 선택, 4강: 순결을 위한 영적 전쟁. 회비는 \$35, 부부 참여시 \$60.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해야 한다. 문의: Joon Lee 목사 714-742-2995

▶베델교회는 베델의 의료 전문인들을 초대하는 Bethel Medical Alliance 모임을 갖는다. 11/11일(토) 오후 6시, MD, DO, DPM, PA, DDS, DMD, RDH, RDA, RN, NP, CRNA, Rph, CPhT, OMD, OD, Optician, PT, DC 의료 관련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제21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열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가 10월 30일 오후 5시에 LA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미주 지역 주요사업 및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협의회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은, 1 통일·대북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2 바른 통일담론 확산으로 국민통합의 플랫폼 역할 수행 3 재외동포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활성화 4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 미래 세대 지원으로 설정했으며, 11월 말 개최될 제21기 전체회의에서 윤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목표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민간 통일공공외교 활성화를 통해 국제 협력 및 지지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석동현 사무처장이 참석해 21기



제21기 민주평통의 제1차 미주지역회의 운영위원회 회의가 10월30일 오후 LA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민주평통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강일한 부 협의회 회장, 린다 한 워싱턴협의회장 등도 의장, 이용태 LA협의회 회장, 설증혁 OC·SD 자리를 함께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미주와 해외 신천지의 현황과 대처방안> 에스라 김 목사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11/6~8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전도와 목양' 을 주제로

작은교회를 돕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된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지는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에서 '미주와 해외 신천지의 현황과 대처방안' 강의를 맡은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 바람 교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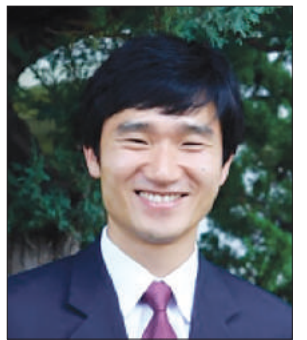
1. 목사님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 바람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는 에스라 김 목사입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는 거짓 교리로 진리를 미혹하는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지키고, 교묘한 비전리에 대해 거룩한 저항력을 기르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는 미주와 해외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단에 빠진 분들을 구출하고, 탈퇴한 형제 자매들이 회복하여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목사님께서 강의할 내용과 팬데믹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이 가능할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위브릿지 컨퍼런스에서 저는 '미주와 해외 신천지의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저 또한 작은 교회 목회자 중의 한 사람으로 사역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과 진리 가운데 완전히 신앙의 뼈대를 세웠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의 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뿌려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이 한 순간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의 포교나 그들의 교리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리를 가지고 크리스찬을 집중적으로 포교하며, 심지어 중소형 교회들을 통째로 흔드는 목표까지도 세우는 그들의 활동에는 정확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신천지의 현황과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교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목회자 분들이 미주 전역의 신천지 활동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목양현장에서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11월에 만나뵈 목회자들을 위해서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1월에 컨퍼런스 현장에서 만나 뵈 모든 분들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목회자 분들이 준비된 모든 강의와 더불어 다른 교회 목회자 분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헌신과 수고로 준비하시는 모든 팀들과 참석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작은 교회 목회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강의 주제로 삼아,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저녁 연합집회 (11/6-7, 오후 7시):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개회예배: 이건창 목사(발렌시아샘물교회 담임)  
폐회예배: 권준 목사(사애들 형제교회)  
1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11/6, 4시): 살롬 김 박사(비전 멘토링 대표)  
2 미주 신천지 포교와 활동 현황(11/7, 9시):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 바람교회 담임,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  
3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11/7, 10시 40분): 강사 유권재 목사(나성복부교회 담임)  
4 말씀에 능력을 붙여 넣는 내러티브 설교-부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 (11/7, 1시): 김귀보 목사(달라스 크나무교회 담임,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5 전도는 기쁨이다(11/7, 3시): 강사 유성국 목사(GOSPEL TO ALL 전도센터)  
6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11/8, 오전 9시): 유수연 사모(캘리포니아 ABC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장) 이 외에도 조별 토론 및 중보기도, 위 브릿지 사례 발표 및 저녁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담임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및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녁 집회는 모든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 열려 있다. 김동욱 기자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 바람 교회)

##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주관한 치매 세미나가 벨리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10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감리교 은퇴목사 마을(Baker home- Rowland Heights 소재)에서 소망세미나를 개최했다. 30여명의 은퇴목사와 사모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유언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유분자 이사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줄리 박 교육부장은 치매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주위에 치매환자를 대하고 보살피는 마음의 자세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망소사이어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조가 신청서 작성하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26일 같은 시간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ada Hills 소재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는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신혜원 박사의 치매세미나가 열렸다. 김민선 기자

# 2023.11.12. ~ 2024.02.10.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 ~ 2024.02.10.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 까지  
By 2024. 02. 10.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매일 08:00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ova.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은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 ‘남침례교인’ 마이클 존슨, 美 하원의장에 선출



마이클 존슨(공화, 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이 2023년 10월 25일 하원의장에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C-SPAN 유튜브 캡처

미국 남침례교(SBC) 신자로 알려진 마이클 존슨(공화, 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이 25일 하원의장에 선출되자, 교단 지도부의 축가가 이어지고 있다.

침례교(BP)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남침례교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의 이사로 재직했다. 존슨은 지난 3일 케빈 매카시(공화당-캘리포니아) 전 하원의장이 해임된 후, 25일 전체회의에서 공화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새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매카시 의원은 엑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존슨 의장을 “친구이자 투사이며 원칙을 지키는 보수 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존슨 의장은 당선 직후 연설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대표해 미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을 알고 있다. 미국에서나 해외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의 임무는 여러분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 위대하고 필수적인 기관인 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은 “세계는 혼란에 빠져있지만 강한 미국은 전 세계에 유익하다. 우리는 자유의 등대이며 자치에 대한 위대한 실험을 보존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실험을 시작한 지 불과 247년밖에 되지 않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른다. 하지만 건국자들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잘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는 “우연의 일치만 있다고 믿는다. 저는 성경은 권위 있는 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명확히 말해준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셨다”며 “각자는 이 위대한 나라의 특별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국민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공화국이 빛과 희망, 자유의 위대한 등대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여전히 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RLC 회장인 브랜트 리더우드(Brent Leatherwood)는 존슨이 “우리(남침례교) 대회에 변함없는 헌신을 갖고 있고, 많은 남침례교인들의 소중한 원칙을 지지하며, 국가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그가 하원의장 역할에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지했다. 강혜진 기자

### ‘전쟁 우려’ 레바논 현지 목회자, “떠날 수 없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월드비전

레바논 국경을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투가 확산되면서, 많은 레바논 주민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거나 국외 이민길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베이루트라이프센터에서 하나님의교회(The Church of God)를 이끌고 있는 사이드 디브(Said Deeb) 목사는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인들과 나라를 돕기 위해 머물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다”며 “레바논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각국 대사관들은 자국민들에게 즉각 레바논을 떠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대사관 직원들이 귀국하고 사람들도 떠나거나 도망가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 레바논을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있다. 전쟁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학살한 이후, 국경을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군사 활동도 증가했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를 비롯해 수많은 전쟁을 겪은 디브 목사는 “이 시간 내게 ‘예수 이름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평안이 찾아왔다. 왜 그

럴까?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50시간 금식과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디브 목사는 “이스라엘에서 이번 분쟁이 시작된 이후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웃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내게 와서 ‘우리가 성경 학원에 등록해도 되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성경을 함께 보는 36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했다. 베이루트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이 교회는 아르메니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에서 온 난민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식사와 기타 생필품을 제공한다. 디브 목사는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헤즈볼라라는 레바논의 가장 강력한 정치·군사적 세력이며, 레바논 기독교인들에게 복잡하게 얽힌 이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비난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논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에 디브 목사는 예수님을 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모에 (1부)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모에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들 OC제플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영유아특별 예배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 / 토 5:00(월-금) /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새벽기도회 7:45 13514 Rinaldi St., Norridge, CA 91201 / 81836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국윤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이항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탄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모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새벽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 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벨기든구국재단: 매 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P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한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림혁춘 담임목사**  
아리안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청년예배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의 열매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예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꾼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취기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링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김일성 숭배를 위한 주체사상 형성(上)

일제 강점기 중에 일본이 미국과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패전국이 되어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기에 한반도의 남과 북은 승전국의 균형을 통해 각기 건국을 하게 되었다. 북한은 전쟁이 끝난 이후 더욱 김일성의 정치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체제로 변형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1972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전통적인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반영하지 않은 대신 '수령'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주체사상'을 반영했다.

이 주체사상은 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봉건주의적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김일성 정권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체사상을 차츰 발전시켰다. 칼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의 억제와 균형이 그의 민족주의적 목표를 이를 만큼 충분한 권력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한 김일성은 통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체사상을 계속 발전시켰다.

주체사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유교의 종적 관계인 군신 및 가부장적인 봉건적 권위 의식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상을 통합한 김일성 민족주의 위에 정립된 사상이다. 유교 사상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인본주의에 대한 인식, 새로운 것을 시행하기에 앞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조상 숭배 사상이다. 조상을 섬기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 때문에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북한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일성이 살아 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시행하기 전에 과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유교 사상 때문에 북한 사회는 아직도 과거 김일성의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만의 통치 철학은 오랜 역사의 엄격한 유교 사상과 결합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탁월한 도구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혁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일성의 후임 자리를 놓고 격렬한 경쟁이 이어졌다. 김일성은 아들 김정일과 동생 김영주, 이 두 사람은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1972년 김일성의 60번째 생일에 김정일은 김일성을 위대한 사상과 강력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을 살아 있는 신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으로 만들기 위해 주체사상을 수정했다. 아울러서 "주체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을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세상과 그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바꾸고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많이 믿어왔던 기독교를 부인하며 주체사상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었다. 즉 자신의 자리에 김일성으로 대치시킨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후일에 김일성의 안정적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변종적 사상이자 순수한 공산주의 사상과도 상치되는 것으로써,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사상 체계이며 통치 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로 인해 김일성은 북한에서 유일무이한 신적 존재로 부상했고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에도 김정일이 대를 잇는 봉건적 왕조 세습을 계승할 수 있는 명분과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의 정치 이념화의 확립으로 본인과의 대를 잇는 김정일과 이어서 3대 세습 통치를 정당화하고 내부적 정치 환경을 결속을 위한 통치 기반의 명분화를 위해서 북한의 독특한 왕조 체제와 이념화를 구축한 것이다. 북한의 체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찰스 암스트롱은 자신의 저서 <북조선 탄생>(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추구 과정에서 그동안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매몰되어 온 전통주의적 접근에 관하여 북한 사회주의의 체제에 토착성과 내인성을 강조하였고 그 총체적 결실로서의 체제 내구성을 드러내는 함의에 대한 관점을 서술하였다. (계속)

마그네시아에 보낸 이그나티우스 편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허용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감독과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부패하지 않음의 본보기와 교훈이 될 것입니다."라고 가르친다.

7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 기도, 한 청원, 한마음, 한 소망을 강조한다. 한 복음으로 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하나 됨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어서 8장과 9장에서 이단의 미혹과 유대주의를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8장에서 미혹되지 말라며 주님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9장에서는 소수의 유대인이 율법에 미혹되긴 하였지만 많은 유대인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소개하며 참 성도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10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되는 것이다. 또 부패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소금으로 절여지라!'라고 권한다. 10장 2절 끝에서 '냄새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며 냄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유대교인처럼 사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한다. 11장에서는 예수님 탄생, 수난 그리고 부활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12장에서는 겸손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한다. 13장에서 다시 감독 중심의 질서 있는 교회를 언급하면서 순종과 존경을 권면한다. 14장에서는 교회의 하나 됨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15장에서 서머나 교회 폴리아 감독과 서머나에 방문 중인 에베소 교회 안부를 전한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막네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전한다. 성도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순종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가르친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이그나티우스(Ignatius)감독은 로마로 압송되어 갔다. 이그나티우스는 10명의 로마 군병이 호송하는 상태로 압송되었지만, 약간의 자유를 누렸다. 그 자유란 이웃교회 성도와 나누는 교제가 가능했고, 그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다. 이그나티우스가 각 교회에 전했던 편지들은 2세기 교회 상황을 알려 주는 귀한 자료로 남아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이그나티우스가 보여주는 평안과 용기 그리고 순교를 향한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승은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체포될 때 트라안 황제와 이그나티우스 감독 사이에 대화를 전한다. "이 사악한 자야!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 내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느냐?"

"어느 누구도 테오포루스를 사악한 자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테오포루스라니, 누구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대적들을 막아줄 신들이 없다는 말이나?"

"악마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니,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만 계십니다. 나는 오직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고대할 뿐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죽으심으로 죄와 죄의 근원을 없애고, 그분을 가슴에 지닌 사람들이 악마의 온갖 사악한 것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안에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나?"

"예,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응수한다.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로마 황제 앞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그나티우스가 전하는 편지 중에 마그네시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 마그네시아는 에베소에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지방 도시다. 마그네시아 도

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는다. 서신의 서두에서 밝히는 것처럼 메안테르 강을 끼고 있는 도시였다. 이 마그네시아 교회는 사도행전 19:10에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전하는 아시아 선교사역 중에 세워진 교회로 추정한다.

마그네시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서머나에서 머물던 이그나티우스 감독에게 인사하기 위해 교회 대표를 파견했다. 그 대표단에는 젊은 목회자 다마스, 바울의 조력자였던 조티온 집사, 그리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던 장로들 바수스와 아폴로니우스가 있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파악된 교회 상황을 기초로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교회에 편지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막네시아 성도들의 훈련되고 경건한 사랑에 감동을 받아 편지를 보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생각하여 찾아와 사랑과 격려를 전해 준 막네시아 교회의 사랑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한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막네시아 교회가 젊은 목회자 다마스 감독에 대한 바른 태도를 주문한다. 아마 다마스 감독 나이가 파격적으로 젊었던 것 같다. 3장, 4장 그리고 13장에서 계속 목회자 다마스 감독에게 순종하라고 권한다. 젊은 목회자 다마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권위 존중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6장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서로 존중하라고 권한다. 6장 2절에서 "하나님께 대해 하듯이 여러분은 서로를 존경하십시오. 누구도 육체의 방법으로 이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느 것도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회교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무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기독교(해외) 목회학(석사, 박사) 석사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용 박사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캠퍼스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Th.M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ia.edu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p>"모든 곳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amp;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일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p> <p><b>박은성</b> 담임목사</p> <p>Acts Global Church</p> <p>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p>	<p>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p> <p><b>이미애</b> 담임목사</p> <p>Angel's Church</p> <p>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p>	<p>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 오전 10:00        목요일 오전 10:00        금요일 오전 10:00</p> <p><b>한주봉</b> 담임목사</p> <p>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p> <p>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p>	<p>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p> <p><b>이현욱</b> 담임목사</p> <p>His Presbyterian Church</p> <p>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p> <p><b>송재봉</b> 담임목사</p> <p>LA사랑의 동산교회</p> <p>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박지상</b> 담임목사</p> <p>LA하나교회</p> <p>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JOE HONG</b> 담임목사</p> <p>Metanoia Church of Southbay</p> <p>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p>	<p>주일예배 오전 10:30</p> <p><b>ISAIAH LEE</b> 담임목사</p> <p>New Start Community Church</p> <p>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p>
<p>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p> <p><b>장정호</b> 담임목사</p> <p>Only One Church</p> <p>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p>	<p>주일예배 오후 2:00</p> <p><b>제임스김</b> 담임목사</p> <p>The Well Church</p> <p>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p>	<p>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남상권</b> 담임목사</p> <p>남가주 어노인팅교회</p> <p>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p> <p>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b>김상현</b> 담임목사</p> <p>In Christ Christian Church</p> <p>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p> <p><b>안상희</b> 담임목사</p> <p>남가주늘사랑교회</p> <p>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62-5466</p>	<p>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p> <p><b>오상규</b> 담임목사</p> <p>남가주예수사랑교회</p> <p>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p> <p><b>김창곤</b> 담임목사</p> <p>남가주은혜선교교회</p> <p>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차권희</b> 담임목사</p> <p>늘워장로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313)598-6878</p>
<p>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p> <p><b>강은덕</b> 담임목사</p> <p>늘새론교회</p> <p>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p>	<p>주일예배 오후 12:30        이븐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b>김영일</b> 담임목사</p> <p>더섬기는교회</p> <p>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p>	<p>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p> <p><b>정용암</b> 담임목사</p> <p>랜초한인교회</p> <p>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p>	<p>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토요일참기기도회 오전 7:30</p> <p><b>신용석</b> 담임목사</p> <p>로고스라이프교회</p> <p>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정달성</b> 담임목사</p> <p>리뉴얼새힘교회</p> <p>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p> <p><b>김명구</b> 담임목사</p> <p>말씀위의교회</p> <p>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b>서민수</b> 담임목사</p> <p>방주교회</p> <p>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p>	<p>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p> <p><b>장현석</b> 담임목사</p> <p>버몬한인교회</p> <p>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p>
<p>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p> <p><b>지동근</b> 담임목사</p> <p>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p> <p>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p> <p><b>윤혁</b> 담임목사</p> <p>브림장로교회</p> <p>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p>	<p>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p> <p><b>신현우</b> 담임목사</p> <p>생명과사랑의교회</p> <p>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p>	<p>주일예배 오전 11:30</p> <p><b>곽태규</b> 담임목사</p> <p>생명의길교회</p> <p>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714)252-0858</p>
<p>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p> <p><b>장동훈</b> 담임목사</p> <p>선민교회</p> <p>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p>	<p>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p> <p><b>임상훈</b> 담임목사</p> <p>섬김의교회</p> <p>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p> <p><b>이석기</b> 담임목사</p> <p>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p> <p>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p>	<p>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15        금요일참기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p> <p><b>김요한</b> 담임목사</p> <p>성암교회</p> <p>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p>
<p>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p> <p><b>정찬준</b> 담임목사</p> <p>예심교회</p> <p>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p>	<p>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amp;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요일 저녁 8시        수요일(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p> <p><b>김지연</b> 담임목사</p> <p>원웨이침례교회</p> <p>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p>	<p>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예배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b>최주철</b> 담임목사</p> <p>은혜가샘솟는교회</p> <p>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p>	<p>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amp; Youth 오전 11:45</p> <p><b>표희곤</b> 담임목사</p> <p>은혜샘교회</p> <p>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p> <p><b>류연주</b> 담임목사</p> <p>주님의숲교회</p> <p>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p>	<p>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b>김성규</b> 담임목사</p> <p>주백성교회</p> <p>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p>	<p>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p> <p><b>양수용</b> 담임목사</p> <p>초대교회</p> <p>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p>	<p>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쿠키 모임 오후 6:00(월)</p> <p><b>권현태</b> 담임목사</p> <p>카마리오열방교회</p> <p>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p>
<p>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조인</b> 담임목사</p> <p>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p> <p>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om</p>	<p>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 오전 10:00</p> <p><b>류광환</b> 담임목사</p> <p>커넥션교회</p> <p>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p>	<p>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김용근</b> 담임목사</p> <p>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p> <p>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p>	<p>주일예배 오후 1:00</p> <p><b>정하이</b> 담임목사</p> <p>크로스교회</p> <p>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p>
<p>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안제트(요청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p> <p><b>오충성</b> 담임목사</p> <p>하늘기쁨의교회</p> <p>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p>	<p>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p> <p><b>양국민</b> 담임목사</p> <p>함께하는 주은혜교회</p> <p>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김요한</b> 담임목사</p> <p>Global United Church</p> <p>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p> <p><b>양홍규</b> 담임목사</p> <p>굿프렌즈교회</p> <p>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p>

강준민 칼럼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장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발전(發展)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향상(向上)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장이 멈춘 것을 침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슬럼프란 운동선수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럼프가 오래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빨리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

야 합니다.
하나님은 퇴보가 아니라 진보하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38). 한국교회는 보수(保守)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보(進步)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보수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을 옹호하며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진보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진보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생명을 경시하는 진보는 잘못된 진보입니다.

C. S. 루이스는 "진보란 단순한 변화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순전한 기독교』, 39쪽).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에게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그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 4:15, 개역한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진보"를 개역개정본 "성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한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발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진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수와 거꾸로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진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보입니다. C. S. 루이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셈이지요."(C. 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홍성사, 60쪽). 회개(悔改)란 올바른 대상과 방향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진보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랍비는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우기만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여인들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 주인이나 종, 유대인과 이방인

이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갈 3:28). 모두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강조했습니다(갈 3:29). 복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놀라운 진보였습니다. 면죄부만 사면 연옥에 있는 가족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당시가 톨릭 사제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진보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진정한 진보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본질로,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며, 참된 회개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발전(發展)이란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전은 성품의 발전입니다. 고상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되어도, 우리가 형성한 아름다운 성품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도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엡 4:13).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봉주 칼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하고, 그런 일은 기억조차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인생에 좋았던 경험은 무엇이고, 잊어버렸

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것도 그냥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란, 더 이상 상처나 트라우마가 없이 도리어 어려운 경험들이 유익이 되고,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경험들이 영적으로 좋은 경험, 유익한 경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성장케 하고, 더욱 성숙한 성품과 기질로 변화하게 하고, 포용력과 수용력을 넓게 만들어 주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또래의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경험들입니다. 오랜 가정의 불화 속에서

자란 경험, 18년 동안 신앙의 핍박을 당한 경험, 아버지로 인한 상처로 오랫동안 미움과 상처에 갇혀 살았던 경험,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적 가치관으로 정신없이 살았던 경험,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방황했던 경험, 세상을 탐닉하는 삶을 살았던 경험, 왕복 100마일 개척교회를 4년 반 동안 섬긴 경험, 억울한 오해로 홀대를 당하여, 1년 넘게 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했던 경험, 다툼과 갈등으로 분열된 교회를 6개월 동안 홀로 섬겼던 경험, 재정이 어려워, 공부하고 사역하며, 밤 청소를 했던 경험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전하위복, 성

경적 표현으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등의 상처나, 트라우마, 어떤 유혹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일들이 영적인 경험이 되어, 다른 이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서로 통하게 되고, 자연스레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의 사정이 꼭 제가 경험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 드리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한 사람의 인생 경험은 비록 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택, 은혜의 연못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기독교일보' (Christian Daily)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Also includes an advertisement for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Father's Table Church) with contact info: 무디 고 목사 (213)364-7289.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dvertisement for hair salon services: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Do you want to be a hair cutting expert?). Includes contact info: 문의 (213)392-2323.

Advertisement for '다양한 콘텐츠 제작' (Diverse content creation) by Junimedia. Includes contact info: 323.265.0244, www.junimedia.com.

Advertisement for '아이넥스 바디샵' (iNEX AUTO COLLISION CENTER). Includes contact info: 213.383.1230.

Advertisement for 'Cooking Mom' restaurant. Includes contact info: T. 213.378.8530/213.674.7476.

민중기 칼럼

선지자는 “사회비평가” 인가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정의론 논쟁에서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비판하고 나선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자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는 1980년 이래 프린스턴대학교의 고등학술연구소에서 종교신학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진 사상가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히브리 성경의 정치』(2012), 『출애굽과 혁명』(1986) 그리고 『해석과 사회비평』(1987)이라는 작품을 남기고 있는 탁월한 사상가입니다.

특히 『해석과 사회비평』(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이라는 책에서, 왈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사회비평가”(social critique)라고 주장합니다. 저와 같이 정치신학과 사회윤리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이지만, 평신도들은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의 일반적인 역할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지만, 그들은 부패한 신앙과 사회적 관행을 교정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전적인 사회평론가의 일만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역은 선지자의 중요 사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면서 종종 선지자의 기능을 되새깁니다. 선지자가 있던 시대와 지금이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선지 전통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3가지 직분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3중 직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예수님의 3중 직분을

이어 충실히 감당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벧전 2:9)라고 말했으며, 바울은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엡 2:20) 위에 세워진 성도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의 선지자와 방불하여 소위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 사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신성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전하며, 반대와 핍박을 이겼습니다.

왈저는 『해석과 사회비평』이라는 저술의 3장에서 아모스와 요나를 비교하면서, 아모스가 이상적인 사회비평가임을 주장합니다. 첫째, 아모스는 말씀을 받는 백성과 영적, 민족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사역했고, 요나는 니스

웨 사람들에게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둘째, 아모스는 사회적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지만,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스웨는 멸망한다”(욘 3:4)는 소식 한 마디만 달랑 전합니다. 셋째, 아모스는 기존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특수주의적” 사역을 했지만, 요나는 강요한 니스웨의 국제정치와 폭력(욘 3:8)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보편주의적” 지적에 그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 아모스의 치밀한 논리와 메시지의 구성, 구체적인 죄의 지적과 회복의 ‘로드 맵’(road map) 제시, 그리고 임박한 멸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0년 후 북조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니스웨의 회개를 바라지 않는 요나의 불성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니스웨는 왕과 백성이 모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선지자의 사회비평 사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모스의 탁월한 선지 사역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성 교수 칼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혜택들 (4)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

칼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근원이요, 원천이며, 샘물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이 생명을 우리와 나누주시는데, 그의 성육신의 미덕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우리에게로 전달해 주신다. 이것을 묶어주는 끈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로 전달해 주어서 소유하게 하신다. 이 생명을 물에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은 샘물이요, 근원이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솟아 올라와서 표면까지 넘치는 물이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으며, 성령은 그 어느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연결통로이다. 성만찬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특히, 칼빈은 신비적 연합과 영적인

교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버미글리가 자주 강조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만찬의 중심 개념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훗날 출판된 버미글리의 주석에는 세 종류의 연합개념이 그대로 나오는데, 칼빈이 제시한 내용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버미글리는 칼빈의 편지에 담긴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순서만 바꿔놓았다. 버미글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첫째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성육신에서 연합이 실현되었다. 둘째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점진적으로 교제하여 나가는 성화의 전과정에서 일어난다. 성령은 거룩한 열심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성도는 영적으로 변화한다. 셋째가 성례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교통”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2. 성령의 열매

성령에 의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혜택이자, 유익이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덕성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체 안에서 생명을 살려주는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룬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성도가 생산해 낸다. 여기서 사용된 “열매”(the fruit)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수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성도가 드러내야 할 아름다운 인격의 총체를 언급한 것으로서, 우리를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이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이며, 근원이자, 원천이다. 그래서 복수형 명사가 아니라 단수형 명사, “열매”가 사용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인품과 인격을 드러내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밖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과 교통하는 성격의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재창출하시는 것이다.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희락: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

든 궁극적인 희락의 원천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셨다”(히 12:2). “너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쁨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히 1:9).

화평: 하나님의 평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셨도다”(엡 2:14).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

오래참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

자비: “주는 지신하시므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스 3:11).

양선: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대하 30:18).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도다”(시 106:1).

충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 하시 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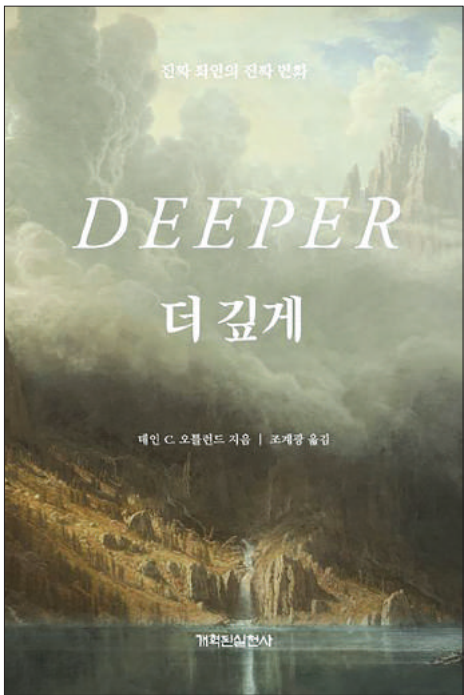
온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누 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절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시기에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원하신다(고전 14:40). (계속)

Innervis Nutrition advertisement featuring 13 products: 1. Apple Cider Vinegar, 2. Hangover Recovery, 3. Energy & Mood, 4. Biotin, 5. Vitamin D3, 6. Vitamin C500, 7. Vitamin C Chewable, 8. MSM, 9. Immunity, 10. Liver Detox, 11. Premium Blood Circulation, 12. Taurine 500 Plus, 13. Fish Oil. Includes contact info for 기독교샵 and various benefits like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더 노력해'가 아니라 '더 깊게']

# 하나님에 관한 해박한 지식, 탁월한 통찰보다 중요한 것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르틴 루터와 같이 오직 은혜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고 그럴 의지나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뺏속 깊이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며 달려 나가는 회심이 시작된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화의 여정에서 신자는 한꺼번에 당겨 받은 돈을 조금씩 소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여긴다. 자주 넘어지는 죄와 연약한 자신의 상태를 직면할수록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좌시러워진다. 성화의 동력을 잃어간다는 말이다. 그때 많은 기독교 가르침은 채찍질에 가깝다. 하나님은 충분히 베푸실 만큼 은혜를 주셨으니, 더 열심을 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텔런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은혜를 더욱 찾을 때라고 말한다. Deeper(원제), 더 깊이 칭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더 깊게>는 총 9개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핵심이 되는 첫 장을 지나면 바로 '절망'이 찾아온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제대로 절망한 사람만이 자기 내면에서 동력을 찾지 않고 밖에서 찾기 때문이다.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그리스도께 더 깊이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방해가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낫달이 아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끈다. 그래서 신자는 시련 기차처럼 많은 고난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더 깊은 믿음을 두도록 연단받는다. 죄가 주는 절망보다 더 큰 은혜를 신자가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연합'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안팎의 세력보다 더 크고 강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실제로 입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신랑이 아내가 가진 흠과 티와 허물 뿐 아니라 아내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아내를 보호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계속해서 공급하고 인도하는 이미지가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가 강하게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안심할 수 있다. 안팎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신부는 신랑의 품에 더 깊이 안길 수 있다.

오텔런드는 매우 흥미롭게 마틴 루터와 C. S. 루이스, 프란시스 웨퍼의 늦은 회심을 다룬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영적인 눈을 뜨고 그분을 보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예증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에 관한 해박한 지식, 탁월한 통찰이 전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더 깊이 알고 맛보는 것이다. 성화의 삶은 죄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죄인의 진짜 변화'는 우리 힘과 지혜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것론 결코 이룩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아는 것이 진짜 싸움의 승리 비결이다. 오텔런드는 이를 '죄를 질식사시키는 것'이라 말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들숨과 날숨이라 저자가 부른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써야 한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맛보고 알기 위해서.

<더 깊게>를 통해 데인 오텔런드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귀기로 초대한다. 오직 그것만이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참



©Image by Holger Detje from Pixabay

로 맛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반복적으로 그분 안에 더 깊게 거해야 한다. 그것이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다.

어쩌면 단순하지만 너무도 쉽게 자기 열심이나 자포자기로 돌아선 성화의 길을 걷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게>를 통해 올바른 길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더 깊게**  
데인 오텔런드 | 조계광 역 |  
개혁된실천사 | 216쪽 |  
15,000원

데인 오텔런드는 이 책에서 성화의 열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철저히 부패한 진짜 죄인의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변하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로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 없이는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데인 오텔런드는 일리노이주 네퍼빌 장로교회 담임목사이다. 최근 그의 책이 국내에 몇 권 보급됐다. <온유하고 겸손하니>(개혁된실천사, 2022), <우리가 몰랐던 예수>(두란노, 2022)에 이어 올해 <더 깊게>라는 책이 나왔다(개혁된실천사, 2023).

이 책은 성화를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가장 큰 이유는 칭의와 성화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존 많은 자원에 또 다른 유익을 더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오텔런드는 성화의 동력이 칭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 다른 말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탁월한 주장을 제시한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COLOSSIANS 4:2

2023. 6. 4. H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태영호 의원과 대책위, 11월 6-8일 미국서 국제 캠페인

# 눈물 바다 된 국회 소통관... “강제복송, 더 이상은 안 돼”

강제 복송된 피해자의 가족도 참여  
“탈북민 이야기에 같은 비극 겪는 듯”  
UN본부 세미나와 지도자 면담 계획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복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유엔본부와 워싱턴 D.C.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국제 캠페인 계획을 밝혔다.

대책위는 탈북민 강제복송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강제복송 피해자 가족 6명과 북한인권단체 한국인 3명 등 총 9명으로 결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친오빠인 이세일 씨(1977년생)가 2009년 강제송환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 위원회의 다른 피해자 가족 5명도 가족이 강제송환돼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처형당한 경우이며, 지난 9일 대규모 강제복송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돼 있다. 김태훈 사무총장(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은 피해자 청원서 제출과 국제 캠페인의 실무를 맡았다.

태 의원은 “지금 양옆에 피해자 가족이 들고 있는 피켓은 이들의 소중한 가족이 강제복송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거나 처형당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됐을 때, 대한민국 오준

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김태훈 사무총장은 “중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 봉쇄를 했던 북한과의 국경이 개방되자, 구금하고 있던 2천 명의 탈북민을 비밀리에 강제복송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6백여명을 강제복송했고, 또 계속 강제복송을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은 20년 넘게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고문, 및 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처형 등 반인도 범죄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 탈북민을 강제복송해 왔다. 중국은 국제법, 국내법과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을 뿐 강제복송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중국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사회권규약의 당사자로서 다양한 국제인권규범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나아가 그 의무행위를 솔선수범해야 할 유엔인권이사국 겸 안보리상임이사국이란 막중한 지위에 있다”며 “중국은 국제적 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하여 난민 지위 인정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탈북민을 절대 강제복송해선 안 된다. 중국의 강제복송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전례없는 중국의 대규모 강제복송을 계기로 종래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다. 유엔도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강제복송된 탈북민의 가족 사진들. ©태영호 의원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유엔총회에 참여해 참사를 폭로하고 중국의 만행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대사와 함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고, 여러 미 의회 관계자를 만나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 이한별 위원장이 현재 강제복송의 실태를 알리지, 소통관은 눈물 바다가 됐다. 이 위원장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간 강제복송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이슈가 된 ‘비온드 유토피아’에 등장한 탈북민 우영복 씨, 2019년 탈북 과정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지리성 바이산 구류소에 감금돼 있다 복송됐고 가족과 함께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조국반역죄로 영원히 살아나올 수 없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아내를 둔 남편, 2006년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합동 조사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 중상을 입은 채 강제 송환을 당한 형제를 둔 탈북민, 2010년 18살 당시 한국에 있는 엄마를 찾아오던 중 중국 공명사에서 공안에 체포돼 포승줄에 묶여 단둥시 구류소에 이감됐다가 북한 신의주 보위부를 거쳐 양강도 보위부로 이송됐다 중국 공안이 넘겨준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한국행을 시도한 조국반역죄라는 판결을 받고 2011년도에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아들을 둔 어머니, 23년 전 간첩죄라는 누명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오빠를 둔 탈북민, 인신매매에 의해 강제결혼을 당해 살던 중 2017년 인신매매죄로 체포돼 장충감옥에서 형을 마친 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바이산 구류소에 이송됐다가 올해 10월에 강제복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동생의 처를 둔 탈북민, 2002년 탈북해 중국인 남성과 아들을 낳고 살다 지난 4월 거주했던 지역을 벗어나 여행하던 중 불법체류자 여행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한국행 시도 혐의로 9월 말까지 연결 복대 구류소에 수감돼 조사받고 북중 국경에 있는 강제송환 구금시설로 이감됐거나 10월에 강제복송된 것으로 추

정되는 가족을 둔 탈북민, 두 차례의 강제복송을 경험한 탈북민 등이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제 오빠인 이세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받고자 2009년 1월에 탈북했다가 중국변방대 군인에 의해 체포됐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국에 있으니 강제복송되면 죽을 수 있다고 제발 강제복송하지 말아 달라고 애타게 빌었다. 하지만 중국 군인은 오빠의 이런 말을 적어 북한에 넘겨 줬고, 이후 오빠는 양강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문으로 손과 발을 봉대로 감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의 증언에 의해 알게 됐다. 지난 7월 오빠의 강제실종에 관한 생사 확인 요청을 유엔의 ‘비자발적 강제 구금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에 제출했지만, 북한은 ‘음해할 목적으로 묻는 인권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한 줄의 답변만을 보내 왔다.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오빠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며 “오빠와 같이 수많은 탈북민 가족들의 피해는 중국의 반인도적인 강제송환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많은 재중 탈북민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강을 건넌다가, 인신매매, 강제노동, 착취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며 살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송환돼 죽음을 맞이하는 탈북민 가족의 인권을 지켜 달라”며 “특히 대한민국과 유엔회원국은 중국의 탈북민 체포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길 바란다. 강제복송 탈북민 피해자 가족은 반인도 범죄 만행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선별대에 나서서 규탄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태 의원과 대책위는 먼저 11월 6일 뉴욕 유엔본부 내에서 세미나를 열고,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복송 문제를 포함하고, 특히 중국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엔 중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복송 시위를 진행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려 한다. 11월 8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쥘리 터너 미 북한인권 특사, 미 상하원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김신의 기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 ©주최측 제공

주 유엔 대사는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 우리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는 듯 눈물을 흘린다. 먼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해 회의를 숙연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강제 복송된 탈북민 6백여 명과 아직 중국 감옥에 남아 있는 1천여 명은, 우리의 침묵은 죽음이고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와 대책위는 앞으로 미국에서 펼칠 국제 캠페인

강제복송 책임자를 주변국, 또는 제3국으로 막연하게 표현하는 종래의 관례를 벗어나 중국이라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인권 침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 부끄럽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강제복송의 만행을 계속할 경우, 중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검토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올림픽의 중국 참가 봉쇄를 검토해야 한다”며 “유엔 총회는 작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한 바 있고, 1980년에는 국제사회와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바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